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이번주 독서: 김대진 하상바오로, 김예중 안나마리아
다음주 독서: 조성익 토마스 모어, 조은경 수산나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우상인 사비나
이번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김보미 로사
다음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1 차헌금: \$ 249
2 차헌금: \$ 117
교 무 금: \$ 510

합 계: \$ 876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 오늘의 묵상

만 리 길 나서는 길 / 처자를 내맡기며 / 맘 놓고 갈만한 사람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땀던 배 끼치는 시간 /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 “너만은 제발 살아 다오.” 할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일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깊이 이해해 주고 믿어 주는 그런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믿어 주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줄 수 있는 친구, 내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슬플 때 달려가 영영 울어도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며 내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삶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에서 그런 친구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기다리는 친구가 되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삶의 짐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손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아픔을 품어 주고 함께 아파하며 사랑해 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그를 외면해도 나만은 곁에 남아 그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기다리는 그런 좋은 친구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줄 때 이미 내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23 주일]

2011 년 9 월 3 일

<제 1 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3,7-9

<제 2 독서> 로마서, 13,8-10

화답송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18,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59 봉헌: 218 성체: 159 파견: 45



생명의 말씀

공동체 생활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너무 미워하여 툽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서로 폭력을 휘두르며 크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금붕어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다른 금붕어는 이제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금붕어의 몸이 썩기 시작하면서 물 역시 악취를 풍기며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지내기에 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가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지역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아니면 슬프고 버거운 인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다른 이가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화해하도록 타일러 주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타인이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잘못을 하지 않은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 속에 주저앉아 체면과 고집, 불안 속에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능동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청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얻는 방법이요, 믿는 이의 자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활하는 우리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크게나 작게나 실수를 범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인 것은 상처가 없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깊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진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이웃과 함께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배려해 주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공지사항

- 다음 주 토요일에는 추석 야외 미사를 드립니다. 장소는 Elver Park Shelter (1240 McKenna Blvd), 시간은 오전 11 시입니다. (성당 홈페이지 약도 참조하세요) 사목위원들은 오전 10 시까지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지하 친교실 공사가 끝나서 미사 후 친교를 다시 지하 친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주부터 미사 후 마침 기도로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 건진 성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부님께 말씀해 주세요.
- 고미현 다미아나 자매님 어머님께서 귀국하시면서 감사헌금을 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삼 종 기도

삼종기도(三鐘祈禱, 라틴어: Angelus)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알린 사건(성모영보)을 기념하여 바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기도이다. 삼종은 종을 세 번 친다는 뜻으로, 이 종소리를 듣고 바치는 기도라고 해서 삼종기도라고 부른다. 종을 세 번씩 치는 이유는, 예수의 강생구속 도리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삼종을 침으로 다른 종소리와 구별지어 삼종기도 종소리임을 알리는 편리한 점도 있다.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들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